

彌勒寺塔과 定林寺塔

— 建立時期的 先後에 관하여 —

金正基

(一)

百濟時代に 建立된 石塔은 半破된 狀態로 남아 있는 彌勒寺址石塔과 거의 完全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定林寺址五層石塔의 두 基 뿐이다. 이 가운데 彌勒寺塔은 現在 進行되고 있는 寺址 全域에 대한 發掘調査에 의하여 各各 中門, 塔, 金堂과 中門 左右에서 金堂 뒤를 둘러싸는 廻廊을 갖춘 中院과 東, 西院 및 中院 뒷쪽의 講堂院으로 構成된 彌勒寺의 西院塔址이 밝혀졌다. 彌勒寺는 百濟 武王代(六〇〇~六四一 在位)에 創建된 寺刹일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中院에 木塔, 東, 西院에는 石塔을 配置하고, 中院의 殿塔이 東, 西院보다 좀 더 큰 規模로 만들어진 寺刹임이 發掘調査에 의하여 確認되었다. 定林寺址는 日政末期에 一次 發掘調査되었으나, 調査報告書가 刊行되지 않은 채, 그 發掘 平面圖만이 傳해졌던 것이다. 그것이 寺址 全域의 整備 淨化를 위하여 一九七九年부터 一九八〇년에 걸쳐 再次 發掘되어 寺址 中心部の 發掘이 完了되고 그 報告書가 刊行되었다^①. 이 報告書에서 定林寺의 創建年代는 「遷都(A, D, 五三八)後 얼마 되지 않은 時期」이며 石塔에 대해서는 「創建當時의 遺構임이 틀림 없으며 또 後代에 再建된 痕跡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石塔에 先行하여 다른 木造塔婆와 같은 것이 建立된 形跡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어 「從來의 美術樣式史的인 立場에서 定說化돼 있는 益山彌勒寺石塔先行說에 대하여 考古學的인 側面에서 問

題를 提起하는 것이며 再檢討를 必要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②.

彌勒寺塔에 대해서는 일찌기 高裕燮先生께서 「朝鮮 石塔婆의 始源形式을 이룬 方形多層樓木造塔婆樣式을 재현한 최초의 예로서 益山郡金馬面箕陽里 龍華山下 彌勒寺에 있는 多層塔을 들겠다」^③고 하였고 또 「양식 발전사상으로 보아 彌勒寺址의 석탑과 부여의 百濟塔(定林寺址五層石塔)^④과는 각각 前後의 關係에 있는 것으로 定立하고, 또 실제적인 부분 형식의 係連性的의 존재로 보아 부여 百濟塔은 彌勒寺址의 석탑으로부터 발생하여 다시 一轉變을 표시한 것으로서 定立할 수 있다」^⑤고 하였다. 아직 美術史分野의 研究의 초창기였다고 할 수 있는 一九四〇年代에 이와 같은 卓見을 發表할 수 있었던 事實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없다. 이說은 그 후 많은 우리나라 石塔 研究者에 의해 支持되어 왔고 定說化되었던 것이다. 筆者도 「典型樣式의 石塔과 彌勒寺址石塔」이란 小論에서 「彌勒寺址石塔 以前에 또 다른 先行形態의 石塔이 있었는지, 또 彌勒寺址石塔과 感恩寺址東, 西三層石塔이나 定林寺址五層石塔 사이에 끼워지는 過渡的인 形態의 石塔이 있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現存하는 數百基에 達하는 石塔을 살펴볼 때 그러한 塔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塔들이 過去에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形便이다. 그러므로 彌勒寺石塔이야말로 韓國 固有의 石塔樣式인 新羅樣式의 石塔과 百濟樣式의 石塔에 共通되는 先行形態의 石塔 즉 祖形石塔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彌勒寺塔을 바탕으로 하여 感恩寺塔에서 代表되는 新羅樣式의 石塔과 定林寺塔에서 代表되는 百濟樣式의 石塔이 나타내는 樣式, 技法上의 變化過程을 分析 檢討한 바 있다^⑥. 그러던 가운데 定林寺址發掘調査 結果에 의하여 定林寺塔이 彌勒寺塔보다 먼저 즉 彌勒寺塔이 七世紀前半期에 建立된 것은 거의 確實한데 定林寺塔은 六世紀前半期에 建立된 것이라는 見解가 發表되어 우리나라 石塔 研究에 큰 混亂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이 定林寺址 發掘報告 속의 石塔 建立에 關係되는 內容을

바탕으로 그主張의妥當性與否를檢討하고 아울러 그밖의關聯寺刹과의比較를 통하여 두石塔의建立時期的先後關係를考察토록 하겠다.

(11)

發掘調査報告書에서石塔이定林寺創建當時에建立된것이라는主張의根據로삼은部分이이考察의核心이되는것이므로먼저로움을참고발췌收錄하겠다.報告書속의遺構說明的第五項「石塔」에서石塔의基壇에대하여「基壇地台石의一邊은三・七五m이다.基壇地台石과並行해서周圍四面의地表面을區劃하기위하여外廓石列이施設되었으며그一邊의길이는四・九〇m이다」라고하고이어基壇版築土에관하여「이번에實施된發掘에수반해서이石塔의基礎部分에대한調査를試圖하게되었으며그것을위한方法으로서는東、西、南三面의대략中央部分을택하여혹은조계팻이나깊은트렌치를掘下하여地中の構造를觀察하였다.그리고西面에서는基壇地台石과外廓石列과의사이를메운흙을除去하여石材를露出시켜보았다.圖面一九?二〇은이트렌치의斷面に나타난土層을調査하여實測한것인데이圖面에서보는바와같이石塔의基壇部分은순전히版築土에의하여構築되었으며石塊를混用하지않았다.

특히「版築技法에서볼수있는顯著한特徵은그土層을上、中、下の세部分으로區分해서構築한點을들수있다」라고하여그上、中、下の版築의狀況을자세히說明하였고、「이第一版築土層은外廓石列밖으로六〇cm의範圍까지를占有하였으며東、西、南三面이모두同一한狀態를이루고있었다」라고했다.또「第二版築土의範圍는그上部는第一版築土層과同一하였으나下部로내려갈수록 점차縮少되었으며八〇cm깊이에이르러서는그面積이外廓石列로區劃된面積과同一하게되었다」라고하고다시「I・II版築土層을둘러싸서그下部와周圍에는準版築土層이라고도볼수있는赤褐色土層이存在하였다.이

第三版築土層에대해서는調査를充分히實施하지못하였으나西面에관트렌치에서의所見으로서는I、II層下部에서는約七〇cm의두께로堆積되었으며周圍에서는一・八〇m의層을形成하였는데그範圍는外廓石列밖으로約三m内外線에미치고있었다」라고했다.또外廓石列의說明에서「그것이第一層인黃色版築土와密着되어그上部에配列된事實이 밝혀졌으며石塔建立當初부터있었던施設임을알수있게되었다」라고하고石塔地台石下の基石에대하여「石塔地台石下에는基石이라고도말할수있는石塊들이놓여있었다.西面에서露出시킨바로서는五個의基石이布置되어있었는데그石塊들의크기는길이①一〇〇cm、②八二cm、③四〇cm、④八五cm、⑤六五cm이며높이는모두가三〇cm程度이다.이들은地台石보다그前面으로約一五cm가량나오게하여配置하였으며그下部는上記한바第一版築土層과密着되었다」라고하였다.

報告書의遺蹟調査에대한考察에서는그第一項의伽藍配置에關한說明에서「우리는이번發掘에서創建伽藍에있어서의木塔建立에대한可能性을考慮하여특히石塔左右兩面에서徹底한土層調査를計劃하였으며각각二〇餘m에걸쳐二m를넘는깊은트렌치를팻다.石塔의下部基礎는堅固하게다져진版築土層을形成하였으며이版築土層의構築時期는金堂址를包含하여그以南의境內敷地를造成하기위하여廣範圍하게築成된두꺼운盛土層과同時에施工된事實이 밝혀졌다.石塔이그前後面에位置한中門및金堂과同一한時期에建立된事實을이러한土層에대한調査를通해서證明할수있었으며하나의問題를解決할수있었던것이다」라고하였다.

以上的內容을要約하면「石塔基壇下部에는基壇外廓石列밖으로三m의範圍에地表下約一・八m에達하는寺刹創建을위한敷地造成時에만들어진準版築이있고,그안에外廓石列밖으로六〇cm範圍에두께約八〇cm의I、II版築層이있으며,이版築은外廓石列이나基壇地台石下の基石과密着하고있고,石塔에先行하는다른木造塔婆

와 같은 것이 建立된 形跡이 없으므로 五層石塔은 定林寺 創建時에 建立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三)

上記한 바와 같은 理由에 의하여 五層石塔이 定林寺 創建時에 建立된 것이라는 主張에 대하여 筆者는 적지 않은 疑問을 느낀다.

첫째는, Ⅰ, Ⅱ, Ⅲ層으로 構成된 掘擴版築層이 寺刹 創建을 위한 敷地 造成時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點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그것이 石塔을 建立하기 위한 基礎로 만들어진 掘擴版築層이라는 確實한 證據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報告書에서는 基壇 外廓石列이나 基壇 地台下의 基石이 版築土에 密着되어 있음을 強調하며 따라서 石塔이 版築이 만들어진 直後에 세워진 것, 즉 이 版築이 石塔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主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事實만으로는 결코 充分한 立證資料가 될 수 없는 것이다.

報告書에서는 「版築技法」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舊地表(人工的으로 構築된 地盤의 表面이거나 自然的인 生 땅地盤의 表面이던)에서 그 위에 세워질 建物の 基壇 넓이 정도의 平面形態로 얼마간의 깊이를 갖는 豎穴을 파고, 그 豎穴 바닥에서 粘土와 砂質土를 交互로 얹게 하고 굳게 다지면서 쌓아올려서 보통의 경우 地表보다 높게 쌓아 地表上에 나타나난 部分의 外周에 石材로 外裝하여 建物の 基壇을 만드는 方法이며 基壇土 構築方法으로는 가장 高級이며 精誠을 들인 方法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百濟의 金剛寺 金堂, 塔, 中門의 基壇과 新羅의 皇龍寺 中金堂基壇이 이 方法으로 만들어졌고 筆者는 이를 掘擴版築基壇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까지 調査確認된 掘擴版築基壇은 우리나라에서는 勿論, 日本의 古代寺刹에서도 恒常 木造建築의 基壇에서 採用된 것이며, 그 版築된 土層의 上面은 반드시 地表에서 隆起되어 있다. 萬一, 五層石塔 밑에서

確認된 版築土層이 當初에는 그 上面이 地表上에 隆起되고 있었던 것을 후에 그 隆起된 部分을 削除하여 그 위에 石塔을 建立하였다면, 그 部分의 地表面에는 先行建物の 痕跡은 없어지고 石塔 基壇 外廓石列이나 基壇 地台下의 基石은 版築土層과 密着된 狀態로 만들어진 것이 分明하다. 그런 경우 報告書의 遺構 說明에서 말하고 있는 事實 그대로의 狀態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報告書에서의 그와 같은 事實을 들며 版築을 만든 時期와 石塔을 建立한 時期가 같다고 하는 證據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石塔이라는 石造架構物의 基礎로서 果然 掘擴版築이 만들어진 수 있었을까 하는 點이다. 위에서 말한 바 있지만 掘擴版築基壇은 筆者가 아는 範圍內에서는 木造建築의 基壇에서 確認되었고, 그것은 恒常 上面이 地表 위로 隆起되어 있거나, 원래는 隆起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筆者의 寡聞의 탓으로 石造建築 특히 石塔 基壇 下部의 基礎로 地表下에만 施工된 掘擴版築의 存在는 이 定林寺 以外에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新羅의 石塔의 경우이기도 하나 筆者가 直接 調査한 感恩寺址 西三層石塔의 基壇 下部에는 큰 石材를 基壇 範圍만큼의 넓이로 깔고 있었고 ⑦, 日政時 調査된 千軍里寺址 東, 西三層石塔 역시 그러한 것 같았으며 ⑧, 一九八〇년에 調査된 味吞寺址 三層石塔 基壇 下部에서는 人頭 大의 돌과 直徑 三五cm, 두께 四〇cm 정도의 좀 더 큰 돌과 흙을 섞어서 五~六벌씩 쌓았고 돌과 찰흙을 섞어 다짐한 다음 그 위에 다 불을 지펴 구워서 이 찰흙을 굳혔다고 했다 ⑨. 이와 같이 石塔 基壇 밑의 基礎 固힘은 石材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 感覺의으로도 石造架構物 밑에 만들어진 基壇은 石材 위주로 하는 것이 合當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定林寺址 五層石塔에도 基壇 地臺石下에 基石으로 길이 一〇m에서 四〇cm에 이르고 두께 三〇cm나 되는 塊石을 깔고 있고 그 外面은 地臺石보다 一五cm 밖으로 突出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石材가 基壇 下部 全面에 깔려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充分한 石塔의 基礎 役割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萬一 五層石塔을 위하여 施工된 掘塲版築이라고 假定할 경우 왜 그렇게나 넓은 範圍에 걸친 版築이 必要했던 것인가 하는 疑問이다. 石塔 基壇 地臺石의 一邊은 三.七五m이며 外廓石列의 一邊은 四.九m였다. 그런데 掘塲된 版築 上面의 範圍는 第Ⅰ版築이 一邊 六.二m이고 第Ⅲ版築은 一邊 一〇.九m나 되었다. 이와 같이 必要 以上으로 넓은 範圍에 手工이 많이 所要되는 掘塲版築을 石塔 밑을 補強하기 위하여 施工했다면 이 定林寺 建立을 計劃하고 施工을 擔當한 技術者는, 工事に 대한 效果的인 經濟性을 無視한 處事 以外에도 石塔이 地盤에 미치는 荷重이나 地盤(여기서는 版築土層)이 支撐하는 應力에 대한 知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過去 우리들이 調査한 古代遺蹟에서의 築造工法 등에 나타난 性格과 質이 놀랄 정도로 優秀하고 合理的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石塔에 대한 版築과 같은 不合理하고 虛費的인 것을 본 바가 없었다.

넷째, 版築 範圍의 넓이로 보아, 이 掘塲版築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當初에는 地臺 위에 隆起된 掘塲版築으로 만들어진 木造塔의 基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百濟 寺址에 대한 發掘調査에서 밝혀진 主要建物の 基壇의 概略의 크기는 別表「I」과 같다. 이 表를 보면 軍守里廢寺와 金剛寺의 金堂과 講堂의 基壇의 規模는 서로 비슷하고, 木塔 基壇의 크기도 一邊이 一三.九m와 一四.二m로 서로 비슷하다. 이에 비하면 定林寺의 金堂과 講堂의 基壇은 좀 작은 편이다. 그런데 古代伽藍에 있어서의 主要建物の 規模는 平面構成과 立體構成上 서로 비슷한 比例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豫測되기 때문에 定林寺의 金堂과 講堂 基壇의 크기에 알맞는 木造塔의 基壇의 크기는 대략 一邊 一.二m 정도일 것이라고 推測된다. 萬一, 定林寺 石塔 下部의 第Ⅲ版築의 範圍가 基壇 外廓石列 西面에서 確認된 約 三m 밖에서 시작된 것이 다른 東, 南, 北面에서도 같은 狀態라면 一邊 一〇.九m로 復原된다. 金剛寺 木塔址의 경우와 같이 基壇의 地臺石을 版築된 外廓線 바깥 六〇cm 정도의 位置에 配置했다면 ⑩ 이 基壇의 一

邊은 一.二.二m가 되어 定林寺의 金堂과 講堂 基壇의 크기에 대하여 알맞는 木造塔의 基壇이 된다(別表「II」參照)。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石塔이 建立되기 전에 그곳에 木造塔이 있었고 그 후 木造塔이 消滅되어 그곳 木造塔의 地上에 隆起된 基壇土를 削除하여 五層石塔을 建立한 것이며, 地下에 남은 版築土層은 木塔의 掘塲基壇의 地臺下에 남은 部分이라 解釋하는 것이 合理的이 아니겠는지.

以上の 네 가지 점이 定林寺址發掘調査報告書에서 說明된 遺構의 說明과 結論에서 主張된 現存 石塔이 定林寺 創建時에 建立된 것이라는 데 대한 直接的인 疑問點과 그에 關한 筆者의 見解이다.

(四)

百濟時代에 創建된 寺刹址 가운데 發掘調査된 軍守里寺址, 金剛寺址 및 扶蘇山中腹의 所謂 西腹寺址들은 모두 木造塔을 갖는 寺刹이었다. 東南里寺址에는 塔이 存在하지 않았고 그 밖의 發掘調査되지 않는 帝釋寺址와 印江寺址도 모두 木造塔을 갖는 寺刹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現在 發掘 중인 彌勒寺址에서는 그 中心伽藍인 中院에 木造塔이 있었고 副次的인 伽藍이라고 할 수 있는 東院과 西院에 비로소 우리나라 石塔의 始源的인 塔으로 생각되고 있는 石塔이 配置되었고 그 중 西院의 石塔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定林寺를 除外한다면 百濟寺刹의 塔은 木造塔이 主流였고 이들 寺刹 중 가장 늦게 創建된 것으로 생각되는 彌勒寺에서도 그 傳統이 남아 있어 中心伽藍의 塔은 木造塔으로 構成했고 副次的인 伽藍인 東院과 西院에서 처음으로 革新的인 石塔으로 構成하는 것을 試圖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유독 定林寺에서만 그것도 彌勒寺보다 一〇〇년 정도 먼저, 王宮에 至近한 位置에 創建된 寺刹에서 石塔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不自然스러운 것이다. 通例的인 美術史的 考慮에 의하면 역시 定林寺에도 創建時에는 木造塔을 갖고 있었으나 어떠한 事情에 의하여 없어졌고(대

개의 경우 火災로 燒失된다. 그 후 木造塔의 掘墳版築의 地表上에 隆起된 部分을 削除하여 그 자리에 벌써 그 時期에는 建立되어 있던 彌勒寺의 東, 西院 石塔을 參考로 삼아 그들의 未備點을 補充하여 지금 볼 수 있는 洗練된 모습과 構造로 된 石塔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定林寺塔이 彌勒寺塔보다 먼저 建立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狀況의 根據는 두 石塔의 構造와 形態上의 比較를 통하여 어느 塔이 發生的 要素를 더 많이 갖고 있는나에 대한 考察의 結果에 의해서 彌勒寺塔의 特徵은 그 形態로 보아서 木造塔의 構成樣式을 石塔과는 加工과 架構에 制約이 많고 木材와는 매우 性質이 다른 材料를 使用하고 石材가 갖는 性格을 理解, 利用하여 忠實하게 模倣하여 세워진 石塔이라는 點에 있다. 그러므로 이 石塔은 石塔으로서 完成된 樣式과 完壁한 架構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어디까지나 木造塔에서 百濟樣式이나 新羅樣式의 石塔과 같은 完成된 石塔의 樣式이나 架構를 갖는 石塔에 이르는 過渡的인 形態와 架構로 된 石塔이라고 規定짓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石塔의 基壇은 巨大하고 重量 많은 石塔을 支撐하기에는 그 內部 構造가 너무나 虛弱했고, 또 塔身부와 屋蓋部를 構成하는 많은 種類의 部材를 일일이 別石으로 만들어 이를 쌓아올렸기 때문에 構造의 虛弱하여 崩壞하기 쉽다는 石塔으로서의 決定的인 缺陷을 갖게 되었다¹¹. 定林寺塔은 彌勒寺塔의 基壇部에서 石造階段을 省略하고 基壇 自體도 그 形態를 簡略化하여 構成 部材의 數를 적게 했다. 塔身 역시 方一間으로 만들고 包壁을 省略하는 등 構成 部材의 種類와 數를 減少시키고 屋蓋받침에는 傾斜面을 넣어 그 形態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塔身 기둥을 下廣上狹으로 만들고, 石塔 構成 部材를 각각 別石으로 만든 點은 彌勒寺塔과 같은 方法을 採擇하였으나 塔全體의 構成 部材數와 種類를 훨씬 적게 하고 全體 規模를 작게 했으며 形態를 簡略化한 것은, 彌勒寺塔이 갖는 石塔으로서의 缺陷을 補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定林寺塔의 出現을 彌勒寺塔을 바탕으로 石塔의 發生과 그 發達過程의 一般的인 經路에 따라 解釋할 수 있는데, 萬一, 定林寺塔이 먼저 만들어졌고, 彌勒寺塔이 뒤에 만들어졌다면 이 두 石塔 사이의 形態나 架構法의 變化過程을 어떻게 說明할 수 있을 것인가. 石塔으로서 거의 完壁한 形態와 構造를 갖춘 石塔이 이미 存在하는데도 不拘하고 木造塔에서 石塔으로의 過渡的인 要素를 가졌고 따라서 石塔으로서의 缺陷이 많은 彌勒寺塔을 그 뒤에 만들었다면 彌勒寺塔의 作家는 전혀 定林寺塔의 存在를 모르고 이 塔을 만들었던 것인지, 혹은 意識적으로 定林寺塔을 無視했던 것인지 도저히 理解할 수 없는 現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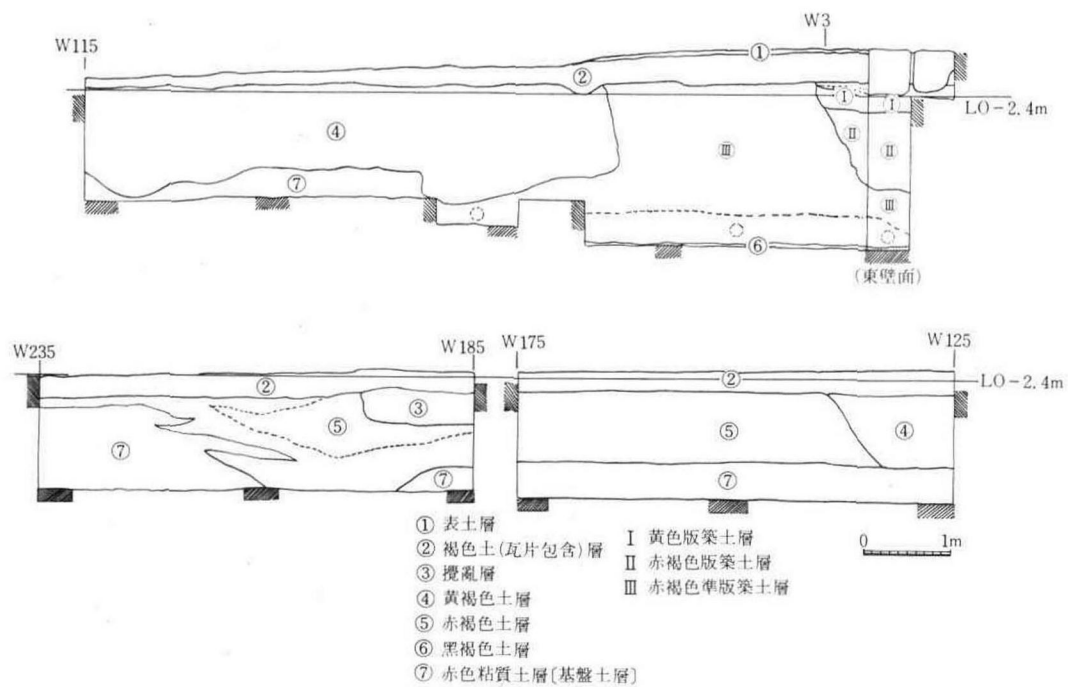
또 하나의 狀況根據로 들 수 있는 事實은 萬一, 定林寺塔이 六世紀 前半期에 建立된 것이라면 定林寺 創建 以後에도 百濟에서 寺刹이 얼마간 創建되었을 것인데 왜 불에 타지 않고 維持管理에 便한 石塔이 彌勒寺以外에서는 建立되지 않았는지 疑問스럽다는 事實이다. 新羅에서는 感恩寺에서 石塔이 建立되자 그 以前의 寺刹에서는 모두 木造塔을 建立하고 있었던 것이 一變하여 이 石塔이 寺刹의 塔婆의 主流를 이루었다. 그런데 百濟에서는 定林寺塔이 建立된지 一〇〇餘年 동안 一切 石塔이 採擇되지 않고 그 末期에 彌勒寺에서 試圖되고 이어 新羅時代에는 新羅樣式의 石塔에 어울리어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高麗時代에 들어와서야 定林寺塔의 傳統을 이은 石塔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렇다면 一〇〇年이라는 石塔의 空白期가 너무나 긴 것이다. 高麗時代에서도 百濟 故地의 사람들에게 魅力을 느끼게한 定林寺塔이 百濟사람들에게는 그 不燃性和 管理의 便宜에도 不拘하고 전혀 魅力을 느끼게하지 못했다는 것은 理解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진 1. 定林寺塔



사진 2. 彌勒寺塔



圖面 定林寺塔 西塔 土層圖

(五)

以上과 같이 定林寺塔의 建立時期에 關하여 發掘된 遺構에 대한 理解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指摘 考察하였고 아울러 參考하여야 할 狀況根 據를 들어 考察한 結果, 筆者는 역시 定林寺가 彌勒寺보다 먼저 創建된 寺刹임에는 틀림 없으나, 定林寺 創建時의 塔은 木造塔이었고 뒤에 그 木塔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의 石塔이 建立된 것이며 그 時期는 彌勒寺塔이 建立된 뒤의 일이라고 믿고 싶다. 勿論 지금 段階에서는 이것을 斷定的으로 立證할 수 있는 資料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發掘結果 알려진 遺構의 現況과 間接的인 根據이기는 하나 百濟 寺刹에서는 木造塔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고, 石塔 形態와 構造의 一般的인 發展 經路 및 石塔 流行의 空白期등을 考慮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 때문이다. 혹 어느 때인가 定林寺塔을 解體하는 일이 있으면 이 問題에 대한 明白한 確證을 얻을 수 있는 可能性은 있다. 그것은 基壇地 臺石 下部의 基壇石材들의 狀態를 알게 될 것이며 또 어찌면 木塔의 心礎가 남아 있을 수 있고, 혹은 心礎를 들어낸 分명한 證據를 얻을 수 있는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定林寺址 發掘調査에서 얻어진 內容을 詳細히 밝힌 調査報告書〔定林寺〕는 遺蹟의 精密한 調査 結果와 出土 遺物에 대한 正確한 考證들에 의하여 百濟文化 究明이나 우리나라 古代 建築史 研究에 크게 貢獻한 基本 資料로서 그 業績은 높이 評價되어야 한다. 다만 그 극히 部分的인 問題인 石塔 下部 및 그 周邊의 遺構狀況에 대한 理解에 若干의 問題, 즉 地表上에 隆起된 掘版 版築 基壇上의 隆起된 部分을 削除하여 石塔을 建立한 경우에도 調査에서 밝혀진 遺構狀態로 나타날 수 있다는 事實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石塔 建立年代를 判斷하였기 때문에 石塔 建立 時期에 대한 큰 疑問과 混亂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別表 (I) 百濟寺刹 重要建物基壇表

寺名		軍守里燒寺	金剛寺	定林寺
金堂	長邊	27.3m (90尺)	21.1m (70尺)	20.55m
	短邊	18.2m (60尺)	18.0m (59尺)	15.60m
講堂	長邊	45.5m (150尺)	45.5m (150尺)	27.05m
	短邊	18.2m (60尺)	19.1m (63尺)	13.10m
	一邊	13.9m (46尺)	14.2m (47尺)	?

別表 (II) 定林寺塔基壇規模 推定表

	一邊長	備考
石塔基壇地台石	3.75m	
石塔外廓石列	4.90m	
I 版築	6.10m	0.6m+4.90m+0.6
II 版築	10.90m	3.0m+4.90m+3.0m
II 版築十地台石幅 (※ 金剛寺 경우 援用)	12.10m	0.6m+10.90m+0.6m

- [註]
- ① 〔定林寺〕 忠南大學校博物館·忠清南道廳刊, 一九八一.
 - ② 上掲註① p. 68.
 - ③ 高裕燮〔韓國塔婆의 研究〕 p. 95.
 - ④ 括弧內筆者.
 - ⑤ 前掲註③ p. 100.
 - ⑥ 〈馬韓百濟文化研究〉 創刊號, 圓光大學, p. 106, 一九七五.
 - ⑦ 金載元·尹武炳〔感恩寺〕 國立博物館, 圖版三七參照, 一九六一.
 - ⑧ 〔昭和一三年度古蹟調査報告〕 圖版六六參照, 一九四〇.
 - ⑨ 姜友邦〔味吞寺址三層石塔基壇部 및 基礎發掘調査略報〕 박물관신문 第二〇四號, 一九八〇, 四, 一刊.
 - ⑩ 尹武炳〔金剛寺〕 國立博物館, p. 13, 一九六九.
 - ⑪ 上掲註⑥ p. 111.